

국책사업 참여, 고급 기술인력 육성 발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여



김 순 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하 지함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 제25회 정기총회에서 단체부문 우수조합으로 선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순재 이사장을 만나, 조합이 걸어온 길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그 파급효과를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모델을 우리 협동조합이 견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소명을 다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김순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함조합은 1989년 창립 이후, 국내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기술개발 지도와 교육훈련, 공동구·판매 사업, 최신의 국내외 정보제공과 더불어 산학협동 지원과 해외 전시회 파견 및 국내외 지함업계 소식 제공을 위한 월간 지함의 발행,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알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천해 왔다.

김순재 이사장은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국가 기술인력도 양성해 오는 등 조합원사의 실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 설립이후 꾸준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조직구조 혁신으로 2003년부터 실질적인 자유입찰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함조합은 꾸준한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제조담배 포장용 골판지 상자 1백82개, 음료 및 식품 포장용 상자 4개 인삼포장용 상자 3개 등 총 1백89개 품목에 대한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업계의 기술혁신 단체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은 권익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공동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실현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김순재 이사장은 “무분별한 조합원 증진은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는만큼 우리 조합은 눈앞의 이익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조합원사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의 개발이 라든지 공동의 판매와 구매를 통한 생산활동 독려와 같은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바로 오늘의 지함조합의 존속의 바탕으로 작용해왔던 것.

현재, 그동안 조합의 수익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조합은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지함조합 역시 예외는 아닐 터.

지함조합은 “기업뿐만 아니라 조합도 혁신적으로 운영해 가야한다”는 모토 아래, 2003년부터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공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자유입찰경쟁에 적응해 왔고, 그 길을 모색해왔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훗날을 미리 준비하는것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함조합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자

율적인 경쟁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삼고 있다.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개발을 다각화하고 조합원사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로 조직기능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사와 나아가는 국가 기술인력의 고급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신 기술 및 고급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매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생의 관계에 있는 골판지 및 제지조합과도 3단체장이 별도의 모임을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많은 의견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김순재 이사장은 “우리 연관업계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대응적인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 또한 경기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극심한 내수침체가 이어져 오고 있다.

“외형적 성장 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순재 이사장.

현재의 성장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피력하는 그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판로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의식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수많은 중소기업 조합 중에서도, 튼튼한 내실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사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